

“동북아 평화 열쇠는 한반도 통일”

박 대통령, 이란과 정상회담서 “이란 경제재건 보탬토록 교역 등 상호협력기로”

이란을 국민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이란 측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한국 국민의 열망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테헤란에서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개최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저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열쇠는 평화통일에 있음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란과 북한은 오래 전부터 긴밀한 군사적 협력 관계를 맺어 온 우방이다. 현재도 이란 지도층 사이에서는 북한에 대한 호의적 시각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란은 무기로서 전용되는 핵 개발에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렸다. 박 대통령은 “저는 (이란측에) 북핵 불용 및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며 “최근 북한의 핵 실험에 따른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란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양국의 실질 협력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토대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는 이란이 조속히 경



2박 4일 일정으로 이란을 국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현지시간) 사드아버드 줌루리궁 앞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참석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의장대 사열을 하고 있다.

제를 재건하고 경제성장이 다시 정상 궤도에 복귀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복원하는데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양국이 전통적으로 모범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온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플랫폼, 철도, 항만, 수자원 등 다양한 사업에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우리는 양국 관계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 간 협력의

제도적 틀을 갖춰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양국 외교장관 회담의 외교 및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가속화 해 나가기에 큰 동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이 채택한 공동성명에 대해서는 “이것은 양국 관계 발전에 비전과 구체 협력 방안을 담고 있어서 앞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에 있어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인적·문화적 교류확대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이러한 교류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문화원을 상대국 내에 개설하기로 했다”며 “2017년을 ‘한·이란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 양국 간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1962년 수교 이래 54년 만에 한국 정상으로는 첫 방문인 이번 이란 방문에 대해 “이란이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나아가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성주 기자

社告

제3회 전국 폼바 명인전

폼바는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서민들의 진솔한 삶을 담은 풍자요 해학이었습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삶의 회로역락, 정치·사회문제 등에 대한 신랄한 풍자로 시대상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의 전통예술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본사는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전국의 폼바 명인들을 초청하여 전통문화예술의 중심지인 전주에서 제3회 전국 폼바 명인전을 열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일시 : 2016년 5월 13일(금) 오후 4시
- 장소 : 전주 풍남문광장 특설무대
- 주최 : (사)전북다문화진흥원
- 문의처 : 063)288-9700,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



행자부, 민원서식 작성내용 대폭 간소화

앞으로 민원신청서 작성이 지금보다 쓰기 쉽고 간단하게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식의 작성내용을 대폭 간소화하고 디자인도 국민에게 친근한 서식으로 재설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민원서식 개선위원회가 운영된다.

이에따라 민원인의 신분증이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간이서식으로 만들고 작성방법·유의사항 등 안내문구와 행정용어 등은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된다.

또 작성 내용이 유사한 서식은 통합하고 종전에 무리하게 통합해 작성에 혼선을 주던 서식은 분리한다. 국민의 일상에 가까운 전입신고서 등 주민등록 관련 서식과 출생·사

망신고서 등 가족관계 관련 서식, 최근 신청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생활과 출입국, 외국인 고용 관련 서식 등 5개 분야 60종을 선정해 개선하고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국민, 소관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민원서식 개선위원회는 2일 첫 모임을 열고 민원서식의 구체적인 설계기준과 향후일정 등을 논의한다. 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칠 전망이다. 전성태 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민원서식 개선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등 그동안의 정부3.0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 매일 INDEX
5면 전북교육청, 교권 침해 대응 강화

어린이에게 꿈을... 부모에게겐 호도를

전주시 가정의달 행사 풍성

전주시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의 꿈을 키우고, 효(孝) 문화 확산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한다.

5일 어린이날에는 '전주시 제94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열린다. '가족 행복 애(愛)너지'를 주제로 한 이날 행사에서는 어린이날 기념식과 함께, 풀썩이 바른 어린이에 대한 시상식도 열린다.

또 가훈달기, 가족약속카드 만들기, 음식만들기, 전통놀이 체험, 포토존 등 어린이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스도 운영된다.

전주동물원은 어린이날 당일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에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이날 전주동물원 내 중앙잔디광장에서는 (사)한국운동건강협회 전주지부가 운영하는 '부모와 함께하는 문화축제 한마당'도 진행된다. 이날 기념행사(장학금수여 10명) 공연(비보이쇼, 국악한마당, 판도마임, 태권무, 어린이 댄싱등) 가족대항노래자랑 왕중왕전(떡치치기, 재기

차기, 풀넉기, 림보, 투호던지기 등 어린이들이 웃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도 열린다. 또한 전주자연생태박물관 및 야외 학습장 주변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어린이날을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놀이가 마련된다. 주요 행사는 마술공연, 비눗방울놀이, 곤충만져보기, 실개천 물고기 체험, 토끼·병아리 관찰, 보아벤 탐구,

곤충조명등·큰입개구리 만들기 등이다.

이와 함께 효 문화 확산을 위한 어버이날 행사도 마련된다.

4일에는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주시 노인복지연합회(회장 이연숙)가 주관하는 '전주시 제44회 어버이날 기념식'이 오전 10시부터 덕진예술회관에서 진행되며 안골노인복지관과 금암노인복지관 등 관내 노인복지관 6곳에서도 각각 어버이날 기념 위안행사를 전개한다.

평화사회복지관(관장 성동화)에서는 오는 19일 오전 11시부터 복지관 주차장에서 '평화동 효(孝)문화제'를 열고 지역어르신들에게 식사대접과 문화공연을 제공한다. /김영재 기자

보호와 사랑으로 행복을 찾아주세요

행복한 어린이가 나라의 미래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